

# 십계(十界)와 십계호구

## ① 십계

‘십계(十界)’란 생명의 경애를 10종류로 분류한 것으로, 불법 생명관의 기본입니다.

십계의 법리를 배움으로써 생명 경애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각자가 제각기 경애를 변혁해 가는 지침을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란 지옥계(地獄界), 아귀계(餓鬼界), 축생계(畜生界), 수라계(修羅界), 인계(人界), 천계(天界), 성문계(聲聞界), 연각계(緣覺界), 보살계(菩薩界), 불계(佛界)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 천을 합하여 ‘육도(六道)’, 성문, 연각, 보살, 불을 합하여 ‘사성(四聖)’이라고 합니다. ‘육도’는 인도에서 발생한 비라문교 이래의 세계관을 불교가 채택한 것으로, 원래는 생명이 유전(流轉·윤회)하는 세계를 크게 여섯으로 나눈 것입니다. 또 ‘사성’은 불도 수행으로 깨달은 경애입니다.

법화경 이전의 경전에서는, 땅밑의 지옥이나 멀리 떨어진 정토(淨土)처럼 십계를 전혀 별개로 존재하는 10종류의 세계로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법화경은 그 사고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하나의 생명에 십계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밝힘으로써 십계가 고정적인 세계가 아닌, 생명의 경애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대저(大抵) 지옥과 부처는 어느 곳에 있는가 하고 찾아보면 \* 혹은 서방(西方) 등이라 하는 경도 있소이다. 그러나 자세히 찾아보면 우리들의 오 척(五尺)의 몸 안에 있다고 쓰여 있나이다(어서 1491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계나 불계라고 해도, 땅밑이나 서방 극락 세계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도 자신의 생명 속에 있다고 나타내셨습니다. 생명이 십계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지금의 자신이 지옥의 괴로운 생명이라 해도 불계라는 대환희의 생명으로 변혁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화경에 입각한 십계론은 자신의 생명을 변혁해 가는 원리로 됩니다.

먼저 우리들의 생명에 갖추어진 육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성인은 <관심의 본존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주 타면(他面)을 보건대, 어느 때는 기뻐하고 어느 때는 노하며, 어느 때는 평온하고 어느 때는 탐(貪)을 나타내며, 어느 때는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어느 때는 첨곡(諛曲)이더라. 노함은 지옥, 탐함은 아귀, 어리석음은 축생, 첨곡함은 수라, 기뻐함은 천(天), 평온함은 인(人)이 나래(어서 241쪽)]. 이 글월에 기초하여 육도를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 1. 지옥계

지옥은 원래 ‘지하 감옥’이라는 뜻으로 경전에는 팔열지옥(八熱地獄), 팔한지옥(八寒地獄) 등 수많은 지옥이 설해져 있습니다. 지옥계는 괴로움에 속박되어 있는 최저의 경애입니다. ‘지(地)’는 최저를 뜻하며 ‘옥(獄)’은 구속되어 얽매어 있는 부자유를 표현합니다. [지옥은 무서우니 불길을 가지고 집으로 삼는다 (<니이케어서> 어서 1439쪽)]는 말씀처럼 지옥계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전체가 자신에게 괴로움을 주는 세계라고 느끼는 경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니치렌 대성인은 <관심의 본존초>에서 [노함은 지옥(어서 241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怒)함’이란 자신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나 괴로운 세계에 대한 풀수 없는 원망의 마음입니다. 괴로움의 세계에 사로잡혀 어떻게 할 수 없는 생명의 신음 소리가 노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괴롭다’, ‘무엇을 봐도 불행으로 느낀다’는 경애가 지옥계입니다.

또 파괴 충동에 사로잡혀 자신과 타인을 파괴해 가는 것도 지옥계의 생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간의 괴로움가운데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은 실로 지옥계의 생명이 표출되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 2. 아귀계

아귀계(餓鬼界)란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 괴로운 경애입니다. 아귀의 원래 뜻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항상 굶주려 먹을 것을 원했던 것에 그칠 줄 모르는 격심한 욕망의 불에 몸도 마음도 불타버리는 생명 상태를 아귀계라고 표현합니다.

대성인은 [아귀는 슬프니라 기갈(飢渴)로 굶주려 아이를 잡아먹고(아사 1439쪽), [탐함은 아귀(어서 241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하는 것, 즉 끝없는 욕망에 휘둘러 그 때문에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괴로움을 만드는 경애를 뜻합니다.

물론 욕망 그 자체에는 선악(善惡)의 양면이 있습니다. 식욕 등 인간은 욕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욕망이 인간을 진보시키고 향상시키는 에너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을 창조의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 괴

로워하는 것이 아귀계입니다.

### 3. 축생계

축생(畜生)은 원래 새나 짐승 등의 동물을 말합니다. 대성인은 ‘어리석음은 축생’ 이라고 설하셨듯이 눈앞의 이해(利害)에 사로잡혀 이성이 움직이지 않는 ‘어리석음’ 이 인간의 생명에서 볼 수 있는 축생계의 특질입니다. 정사(正邪), 선악(善惡)의 판단이 서지 않고 본능 그대로 행동해 버리는 경에입니다. 또 대성인이 [축생의 마음은 악함을 위협하고 강함을 두려워하느니라 (<사도어사> 어서 957쪽), [축생은 잔해(殘害)라 해서 서로 살륙한다 (<니이케이서>) 어서 1439쪽]고 말씀하셨듯이 이성이나 양심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타인까지도 해롭게 하는, 악육강식의 생존 경쟁으로 일관해 가는 경에입니다. 이른바 단지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고 타인을 보살피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느 쪽이든 눈앞의 일밖에 보지 못하고 미래를 지향할 수 없는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은 자신을 파멸시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축생계라고 말한다고 해서 불법이 동물을 업신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이라고 맹도견처럼 사람을 구하는 일을 사명으로 살아가는 예도 있습니다. 또 인간이라도 동물보다 잔혹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축생계’ 라는 표현은 당시의 시대관념에 근거해서 인간으로 삶을 받았지만 인간다운 이성이 작용하지 않는 경애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계, 아귀계, 축생계의 셋은 어느 쪽도 고뇌의 경애이기 때문에 ‘삼악도(三惡道)’ 라고 합니다.

### 4. 수라계

수라(修羅)란 원래 ‘아수라’ 라고 하며 싸움을 좋아하는 인도의 신 이름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여 항상 타인에게 이기려고 하는 ‘승타(勝他)의 념(念)’ 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 수라계의 특징입니다. 대성인은 수라계의 생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천태대사의 말을 인용하여 밝히셨습니다. [수라도(修羅道)란 항상 남에게 이기려 원하고 자신이 도저히 맞설 수 없다고 알아도 남이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남을 낮추고 업신여긴다. 자기를 존중하는 모습은 마치 소리가 높고 높이 날아 내려다보는 것과 같다. 더욱이 겉으로는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의 덕(德)을 갖춘 선인(善人)의 모습을 하고 있다 (어서430쪽, 취의)

남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이 뛰어나고 남이 열등하다고 여겨지면 만심을 일으켜 남을 업신여기고 남이 뛰어난 경우에도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기보다 강한 상대와 만날 때는 비굴하게 되어 아첨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대성인을 [교만한 자는 반드시 강적을 만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타나니 예컨대 수라의 교만이 제석(帝釋)에게 공격 당하여 무열지(無熱地)의 연꽃 속에 소신(小身)이 되어 숨은 것과 같다 (어서 957쪽)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매우 뛰어난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는 허상을 만들기 위해, 표면상으로는 인격자나 선인을 가장하고 겸허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내면으로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에 대한 시기과 분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처럼 내면과 외면이 다르고 마음에 겉과 속이 있는 것도 수라계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대성인은 [침곡(諂曲)함은 수래 (어서 241쪽)라고 설하셨습니다. ‘침곡’ 이란 ‘아첨하고’ ‘비뚤어진’ 마음을 말하며 ‘침’ 도 ‘곡’ 도 마음이 비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첨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본심을 보이지 않고 거짓으로 순종한다’ 는 뜻입니다. 이 수라계는 탐진치의 번뇌나 본능에 휘둘리는 지옥, 아귀, 축생의 삼악도와 달리 자의의식(自我意識)이 강한 만큼 삼악도를 넘어섰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은 괴로움을 동반하는 불행한 경애이기 때문에 삼악도에 수라계를 덧붙여 ‘사악취(四惡趣)’ 라고 합니다.

### 5. 인계

인계(人界)는 온화하고 평정한 생명 상태이며 인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경애를 말합니다. 대성인은 [평온함은 인(人)이니라 (어서 241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계의 특질은 사물의 선악을 판별하는 이성의 힘이 분명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대성인은 [현명함을 사람이라고 하며, 어리석음을 축(畜)이라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善惡)의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있으며 그 기준에 비추어 자기를 조종할 수 있는 경애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다운 경애도 결코 노력 없이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계는 십계에서 가장 가운데 있으며 위로도 아래로도 이동하기 쉬운 면이 있는 한편 계속 인계로 있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악연(惡緣)이 많은 세간이기에 인간이 ‘인간답게 산

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향상하려고 하는 자신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말하자면 인계는 '자기에게 이긴다'는 경애의 제일보라고 할 것입니다. 또 인계의 생명은 '성도정기(聖道正器)'라고 하듯이 불도(佛道)를 이루는 성(成) 올바른 그릇(正器)입니다. 인계는 악연에 접하여 악도(惡道)에 떨어질 위험성도 있는 반면, 수행에 힘쓰면 사성(四聖)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성인은 [지금 이미 얻기 어려운 인계에 생(生)을 받고 만나기 어려운 불교를 견문했으니 금생을 그냥 넘긴다면 또 어느 세상에서 생사를 떠나 보리(菩提)를 증득(證得)하리오] (어서 494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얻기 어려운 인계의 생을 받아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기 때문에 영원의 행복을 얻기 위해 진지하게 신심 수행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 6. 천계

천계(天界)의 천(天)이란, 원래 천인(天人: 지상의 인간을 초월한 힘을 지닌 존재, 신을 말함)이 사는 세계라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금세에서 선행을 한 자는 내세에 천에 태어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불법에서는 천계를 생명 경애의 하나로 하여 욕망을 충족시켰을 때에 느끼는 기쁨의 경애로 평가하였습니다. 대성인은 [기뻐함은 천(天)] (어서 241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면욕(睡眠慾)이나 식욕(食慾) 등의 본능적인 욕망, 새로운 차나 집을 갖고 싶다는 물질적인 욕망, 미래의 세계를 알고 싶거나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고 싶다는 정신적인 욕망 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지각색의 욕망이 충족되어 기쁨에 빠져 있는 경지가 천계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영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희박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계는 지향해야 할 진실한 행복 경애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상 지옥계에서 천계까지의 욕도는 결국 자기의 외적 조건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는 천계의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 환경이 평온해질 때는 인계의 편안함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그러한 조건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지옥계나 아귀계의 괴로운 경애로 전락하고 맙니다. 환경에 좌우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욕도의 경애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주체적인 경애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비해 이러한 욕도의 경애를 넘어 환경에 지배 당하지 않는 행복 경애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불도 수행입니다. 그리고 불도 수행으로 깨달은 경애가 성문, 연각, 보살, 부처의 사성(四聖)이라는 경애입니다.

## 7. 성문계·연각계

성문계(聲聞界)와 연각계(緣覺界)의 둘은, 불교 중에서도 소승교의 수행으로 깨달은 경애로서 합하여 '이승(二乘)'이라고 부릅니다. 성문계란 본래 부처의 가르침을 듣고 약간의 깨달음을 획득한 경애를 뜻합니다. 이에 비해 연각계는 여러 가지 사실과 현상을 연(緣)으로 하여 자신의 힘으로 약간의 깨달음을 얻은 경애입니다. 대성인은 [세간(世間)의 무상(無常)은 눈앞에 있으니 어찌 인계에 이승계(二乘界)가 없으리오] (어서 241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이란 만물이 시간의 추이(推移)와 더불어 변화-생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과 세계를 객관적으로 보고 세간 즉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모두 시간과 함께 변화-생멸해 간다는 진리를 자각하여 그 무상(無常)의 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불변의 진리를 구해 가는 것이 이승의 경애입니다. 우리들도 자기 자신을 포함해 만물이 무상의 존재라고 강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성인은 인계에 갖추어진 이승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이승의 경애는 불교 중에서도 소승교가 이상(理想)으로 삼은 것으로 이승의 경애를 얻은 소승교의 성자(聖者)는 무상의 것에 집착하려는 번뇌가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되므로 번뇌를 없애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승이 터득한 깨달음은 부처의 깨달음에서 보면 어디까지나 한쪽 부분이며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진실한 깨달음을 계속 해서 구하는 것이 원래의 이승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이승은 그 낮은 깨달음에 안주하여 부처의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스승인 부처의 경애의 위대함은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은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낮은 깨달음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또 이승은 오로지 자신들의 깨달음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려 하지 않는 에고이즘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회신멸지(灰身滅智)라고 해서 심신(心身)을 단멸(斷滅)하여 불성(佛性)을 고사(枯死)시키므로 이승의 중생은 권대승교에서 불성불(不成佛)의 사람으로 낙인찍히고 부처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 8. 보살계

보살(菩薩)이란 부처의 깨달음을 터득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는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이승의 경우 부처를 스승으로 삼아도 자신들과 부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 보살은 '사제불이(師弟不二: 스승과 제자는 둘이 아니다)'의 정신으로 스승인 부처의 경애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 부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넓혀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보살이라는 경애의 특징은 불계라고 최고 경애를 구해 가는 '구도(求道)'와 함께 스스로 불도 수행의 도상에서 터득한 이익을 타인에게 나누어 주려는 '이타(利他)'의 실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성인은 보살계에 대해서 [육도의 범부 중에서 자신을 경(經)히 여기고 타인을 중(重)히 여기며 악은 자기에게 돌리고 선(善)은 타(他)에게 주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어서433쪽)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들의 괴로움과 슬픔에 동고(同苦)하여 사람들에게 발고여락(拔苦與樂: 고통 제거하고 낙을 주는 것)의 실천을 해 가는 것이 보살의 실천입니다. 자타 함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이승이 '자기 중심'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 비해 보살계는 '사람을 위해' '법을 위해'라는 사명감을 갖고 행동하는 경애입니다. 이 보살계의 경애의 근본은 '자비(慈悲)'입니다.

대성인은 [무고(無顧)의 악인(惡人)도 역시 처자를 자애하니 보살계의 일분(一分)이니라(어서 241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돌보는 일이 없는 악인조차도 처자를 자애하듯이 생명에는 본래 자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자비를 삶의 근저에 두는 것이 보살계입니다.

## 9. 불계

불계(佛界)는 부처가 체현한 존극의 경애입니다.

부처<불타>란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우주와 생명을 꿰뚫는 근원의 법을 깨달은 사람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도에서 태어난 석존과 법화경에 출현한 다보여래 그리고 삼세시방의 제불을 비롯, 법화경 이외의 경전에 설해진 수많은 부처를 들 수 있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말법의 일체중생을 구하기 위해 범부의 몸이 부처의 경애를 나타내신 말법의 본불님입니다.

불계란 우주 전체가 무시무중에 걸쳐 자비의 활동을 계속하는 대생명체이며 자타의 생명이 그것과 일체라고 하는 생명의 진실을 깨달은 경지입니다.

또 그 깨달음을 근본으로 무상(無上)의 자비와 지혜를 체현하여 그 힘으로 일체중생을 구하고 자신과 똑 같은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 계속 투쟁하는 사람이 부처입니다.

우주 전체가 원래 불계의 생명이며 구계에 있는 중생의 생명도 원래 그 대생명체와 일체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 부처이며 그것에 대해 방황하는 것이 구계의 중생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주 전체가 원래 불계의 생명이며 구계에 있는 중생의 생명도 원래 그 대생명체와 일체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 부처이며 그것에 대해 방황하는 것이 구계의 중생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불계의 생명은 우리들 안에도 있습니다. 단지 현실상에 나타내기 어려우므로 대성인은 말법의 중생이 불계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 대경(對境)으로써 본존님을 도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존님을 신수하며 자행화타에 걸쳐 창체에 힘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불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니치칸 상인이 [법화경을 믿는 마음이 강한 것을 이룸하여 불계라고 한대 (<육권초>)고 말씀하셨듯이 불계는 본존님을 믿고 곧세게 살아키는 강한 신심을 가졌을 때 우리들의 생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불계의 생명 경애를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무엇에도 침범 당하는 일 없는 절대적인 행복경애라고 할 것입니다. 도다 제2대 회장은 불계의 경애에 대하여 "살아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고 하는 경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부처의 경애는 자주 사자왕(師子王)에 비유되는데 <교오전답사>에 [어떠한 곳에서 놓고 장난쳐도 탈이 없을 것이며 유행(遊行)하여 두려움이 없음을 마치 사자왕과 같으리라(어서 1124쪽) 있듯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절대적인 안심입명(安心)

立命: 어떠한 경우에도 태연자약하게 있는 것의 경애라고 할 것입니다.

## ㉔ 십계호구

이상의 설명은 인계에 갖추어진 십계를 살펴본 것입니다. 인계와 마찬가지로 다른 경애에도 십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십계호구란 십계의 각 경애가 서로 십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옥계의 경애에 있는 중생에게도 십계의 생명이 있습니다. 십계호구라는 법리의 요지는 구계에 있는 중생의 생명에 불계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 즉 구계의 중생이 모두 평등하게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나타낸 점입니다. 불계를 지니지 않은 구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계를 떠난 불계만의 부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은 순간순간 십계의 어떤 경애를 나타내지만 각각의 생명에는 기초(基調: 기본적 경향, 방향)가 되는 생명 경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고민과 괴로움이 끊이지 않아 절망감에 사로 잡히기 쉬운 사람의 기초는 지옥계에 깊이 물들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비와 용기를 갖고 철저히 이타의 실천을 하고 부처의 경애를 향해 항상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의 생명 기초는 보살계라고 할 것입니다.

요컨대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인계의 중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인 이상 기본적으로는 원래 인계가 생명의 기초로 되어야 할 존재입니다만 인계 이외의 경애가 그 사람의 기초로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초는 불도수행으로 변혁할 수 있습니다. 성불이란 각자가 제각기 생명의 기초를 불계로 해 가는 것을 뜻합니다. 십계호구란 만인이 각자의 생명 기초를 불계의 방향으로 전화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경애변혁'의 법리인 것입니다. 이 법리를 기본으로 니치렌 대성인은 만인이 성불할 수 있도록 본존님을 도현하시어 南無妙法蓮華經의 제목을 불러 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

(출처: LB, July, 2004)